

『退溪學報』 4輯, 退溪學研究院, 1974년 4월, 40~62쪽.

- 간행 후 嶠樂선생께서 교정해 놓으신 것을 반영하였음.
- 현대 어법 및 가로쓰기에 맞게 수정하였음.
- 오탈자는 교정하였음.

## 退溪先生の 理到說小考

-大學章句를 中心으로-

李鍾述(性理學研究)

### <目次>

一. 序言	
二. 本論	나. 心統性情
1. 理氣問題	다. 心性の 動靜體玆
가. 理에 對하여	3. 格物致知說
나. 氣에 對하여	가. 朱子の 格物致知說
다. 理氣의 動靜	나. 退溪의 格物致知說
2. 心性問題	다. 理到說과 四七論
가. 心性和 理氣	三. 結論

### 一. 序言

退溪는 朱子를 宗師로 삼는다고 自身이 말하였고 따라서 그 學問의 內容도 性理學의 哲學的 根幹이 되는 宇宙論 心性論과 道德倫理며 學問의 修治方法 등은 勿論이고 文章規範 出處進退 語默動靜에 이르기까지 朱子를 깊이 探求體得하려고 努力하였다. 後儒들이 朱子 以後의 大儒로 치는 西山 眞德秀에게 退溪를 比肩하는 것도 理由가 있을 것인즉 적어도 우리 東方에 있어서는 最初의 朱子學 繼承者로 보아서 그다지 事實과 어그러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이 繼承이라는 말은 模倣이나 依樣의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眞理는 하나이니만큼 朱子를 繼承한다는 뜻은 바로 孔孟을 傳承한다는 말이고 보면 結局 그 道學을 얼마나 잘 보았나 잘 알았나 잘 實踐하였는가 그리하여 몸소 窮極의 會元處에 統合默契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繼承의 含義가 이미 그럴진대 이 不易之大道를 밝히는데 있어서는 隨時變易以從道라는 方法은 無限히 進展하고 있는 時空 속에서 또한 多樣性 있는 變化의 法則을 지니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宇宙의 道理는 死物이 아니고 生生不窮하는 活畫像이니 어찌 守株待兔의 愚를 能事로 삼겠는가?

退溪의 學問이 朱子를 尊慕한 것은 적어도 正統儒學派라면 當然한 歸趨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의 繼承은 決코 墨守塗轍은 아니었으니 즉 易學에 있어서는 朱子 所著인 易學啓蒙에 對하여 그 傳疑를 써서 朱子說의 未洽處를 論究就正하는데 吝嗇하지 않았고 性情論에 있어서는 비록 朱子의 四端理之發七情氣之發의 말을 援用하여 自說의 正當性을 辨證하였으나 이를 理·氣로 分屬시켜 互發論을 편 것이 朱子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으며 理到說에 있어서도 朱子에게서 言表되지 않은 것이었지만 오랜 時月 속에서 反覆研鑽하여 마침내는 臨死直前に 이르러 奇明彥說에 대한 承認形式으로 落着지은 것이다.

學者들이 흔히 새로운 것 獨特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追求하는 나머지 純粹한 繼述을 오히려 陳腐한 것

으로 여기는 弊端이 있으나 하지만 실상 따지고 보면 이 世上 어느 部門에서고 그렇듯이 哲學도 恒時 舊來 說을 依因해서 이를 本然相으로 回復闡明하며 發展止揚하는 反省과 創意의 歷史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 繼述의 眞意를 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날같이 經學의 眞義가 어둡고 儒學의 核心이 正傳되지 못하고 있는 때는 且置勿論하고 李朝儒學만해도 그 內容에 있어서 修養中心이나 事功中心이나에 따라 劃一論을 펼 수는 없지만 大體로 孔孟程朱를 잇는 聖聖相傳의 中正大道와 誠直思想이 時代的으로나 學者本位로나 얼마나 알려졌고 얼마나 實行되었는가? 우리는 또한 이를 基準해서 權衡을 잡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孔子的 學問方法은 이를 要約하면 博文約禮이고 程朱의 그것은 居敬窮理이니 이는 中庸에 말한 尊德性·道問學의 일이며 大學의 格致誠正을 말한 것이니 모두 大道에 趣入하는 道門인 것이다.

本文中에서 말하는 理到說이란 바로 이 知行相須 속의 知에 關한 問題이니 따라서 單純한 主知主義의인 見聞之知에 限하지 않고 先驗的인 德性之知와의 統會融釋으로 集約되는 心の 虛靈知覺을 밝혀 나아가는 것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問題를 解得하려면 心性의 全體大用에 따르는 여러가지 要點과 그 方法을 따라야 하고 아울러 自然과 人間이며 存在와 主體 등의 根據가 되는 形而上의 理와 이 理의 機器的 役割을 하는 形而下의 氣를 正確하게 把握해야 할 것으로 안다. 그리고 理到說에 앞서 四七互發說을 내세운 退溪의 學問內容이 그 前後를 通하여 어떠한 相關性을 內包하고 있을까 하는 것도 論及되어야 兩者의 意義가 一貫性있이 根源的으로 分明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二. 本論

理到說이란 格物致知라는 學的方法에 있어서 格致하는 主體와 客體에 關한 問題임으로 最少限의 範圍內에서 理氣며 心性에 대한 理解가 있어야 할 줄 안다. 以下 項을 나누어 要點만을 簡單하게 說明하겠다.

### 1. 理氣問題

#### 가. 理에 對하여

理는 形而上의 道요 氣는 形而下의 器라고 하여<sup>①</sup> 道(理)와 器(氣)의 限界를 分明하게 하였다. 理는 形狀도 方所도 없으며 時間的 空間的으로 無始無終한 것이다. 즉 上下나 左右로 限定性이 없고 또 어떠한 實體도 아니며 有無로 말하는 無自體도 아니다. 情意나 計度이나 造作 등 可視的인 아무런 能力도 없으며 다만 氣 속에 依著하여 있다고 한다.<sup>②</sup> 이와 같으면서도 能히 事物을 있게끔 하는 所以然과 事物의 本來性을 規定하는 所當然이 된다.<sup>③</sup> 그러므로 老子의 虛無도 佛氏의 空無도 아니다. 또한 單純한 架空的인 論理의 對象도 아니며 漠然한 觀念的인 虛構性도 아니오 眞實한 理는 實在하고 있는 것이다. 形而下界의 相對性原理에<sup>④</sup> 依據해서 推究한다면 理와 氣의 相對나(但氣與氣相對와 不同)<sup>⑤</sup>乃至는 事實的인 意味에서 類推한다면 形而上의 世界에도 氣를 그렇게끔 하는 相對的인 論理를 展開 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닌성싶다.<sup>⑥</sup> 그러나 이는 理의 不屬有無하며 淨潔空濶한 絕對性<sup>⑦⑧</sup>에 따르는 그 須資的 所以然的 및 價值的 有善無惡에는 何等の 抵觸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① 形而上者謂之道形而下者謂之器(易繫辭上)

② 理却無情意無計度無造作只此氣凝聚處理便在其中(語類一)

③ 自其一物之中莫不有以見其所當然而不容已與其所以然而不可易者(格物傳)

④ 天地萬物之理無獨必有對皆自然而非有安排也(程子)

⑤ 一便對二形而上便對形而下然就一言之中又自有對雖說無獨必有對然獨中又自有對(語類九五)

⑥ 按朱子嘗曰理有動靜故氣有動靜若理無動靜氣何自而有動靜乎(退溪集二五卷)

⑦ 若理則只是淨潔空濶底世界

⑧ 兩邊生者即是陰根陽陽根陰這箇有對從中出者無對(太極圖解)

## 나. 氣에 對하여

앞서 理에서 말한 바와 같이 氣는 形而下的 器이다. 現象世界에 存在하는 聲色貌象을 具有한 一切의 事物로서 적어도 感覺作用을 通하여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한다.① 그러므로 모든 事物을 構成하는 空氣·原子 等의 材料와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힘·運動 等의 物理的인 性質의 것으로부터② 人間的 義氣 浩然之氣 氣分等 心(精神現象)의 寂感動靜에 이르기까지 形而上인 理 以外の 것 全部를 말한다. 이것을 우리 哲學에서는 陰陽五行이라는 用語로 表現하기도한다.③

## 다. 理氣의 動靜

理는 情意 計度 造作이 없고 形狀과 方所도 없으니 그저 淨潔空濶한 世界인즉 無爲며 無欲하여 動靜이나 發未發이 없을 뿐 아니라 그 自體가 動靜을 云謂할 對象의 性質이 아니다. 이에 對하여 氣는 能히 凝結造作하고 形狀과 方所가 있으므로 有爲하며 有欲하여 屈伸往來며 動靜消長이 있음은 勿論 動靜 그 自體이다.

그러나 理氣는 相須相對하여 分離할 수 없다 하였고 또한 理는 氣의 所以然이라고 하였으니 氣가 動靜한 다면 各在一處인 理가 어떻게 相離하여 動靜에서 超然할 수 있으며 氣의 動靜이 理의 所使然이라면 理의 動靜이 없이 어떻게 氣의 動靜이 있겠는가? 그렇지만 不相離 속의 理의 動靜의 不可避性은 認理爲氣의 眩惑이 이미 潛在된 말이고 보면 理의 動靜에서 問題될 것은 實로 이 두 側面이라고 하겠지만 窮極的인 意味에서 所以然上의 一面뿐이라고 하겠다. 즉 動靜은 形而下的 有無界에 屬하는 일이고, 이러한 意味에서의 動靜이란 그萬의 一도 形而上의 理에는 없다. 그러므로 理의 動靜은 所以然으로서의 動靜 즉 實體的인 動靜이 아닌 動靜이외에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理의 動靜을 한낱 論理上의 單語로 돌리는 것은 아니니 理는 實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唯理論者의 立場에서 말하는 理의 動靜은 不相離의 原則을 忘却하는 데서 理를 氣下로 墮落시키는 結果를 齎來할 念慮가 오히려 濃厚하다 하겠고 理一分殊나 統體太極 各具太極의 根源과 流行의 關係를 理의 動靜의 根據로 삼으려는 것은 理一의 一이나 一源의 理가 形狀과 方所를 限定하는 뜻이 없고 統體太極과 各具太極이 一太極이라는 理解가 前提된 다음에야 誤解가 없을 것이며 理發의 發이 動靜의 氣發과 對舉互發을 뜻한 것이 아님을 察識하여야 退溪의 眞意를 害치지 않을 것이다.

退溪는 非理氣爲一物辨에서 朱子의 理氣決是二物이라고 한 句節을 例로 들어 認氣爲理라는 誤謬를 強硬하게 排斥하였으니 朱子를 이은 眞正한 理氣二元論者인즉 唯理論으로 偏倚되지 않았고 또 그는 일찍이 費隱章 質問의 答辨에서 顯微無問의 句節을 引用하여 顯을 費로 對比시켰었으나 몇 해후에 穩當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顯으로써 말하면 費라고 한다.”고 한 것을 “도(道)의 散在함이 넓고 또 많은 것으로서 말하면 費라고 한다”④고 改正하였으니 이는 顯字는 元來 程子가 物象의 뜻으로 쓴 것이므로 顯으로 費를 對立시켜 解釋하면 形而下로 보게 되어 結果적으로 理와 物의 關係가 될 念慮가 있으므로 다시 詳考하여 보니 未穩함이 있다고 한 것으로 생각되니 정말 그래서였다면 非有二也라고 한 것은 道의 一 即 一太極임을 말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런 것을 미루어 理氣의 動靜을 엿볼 수 있을 줄 안다.

## 2. 心性問題

### 가. 心性和 理氣

① 凡有貌象形氣而盈於六合之內者皆器也(退溪集二五卷影上八〇七面)

② 氣則能凝結造作(語類)

③ 一陰一陽之謂道(易繫上)

④ 以散在之廣且多言則謂之費以無形象可見言則謂之隱非有二也(答鄭子中庚午] …… 以其顯而言則謂之費以其微而言則謂之隱非有二也(答鄭子中別紙丙寅年)

天地는 無心而有爲하고 聖人은 有心而無爲하다고 程子는 말하였다. 이는 天人의 差異點과 一致點을 말한 것이니 則天地는 血氣之心은 없지만 造化의 作用은 있고 聖人은 感覺作用을 갖춘 血氣之心은 있지만 天地造化의 理法에 妙合한다는 뜻이다. 差異는 血氣之心의 有無만 있고 有爲와 無爲는 自然法則에 맞게 作爲하는 것이 있다는 結論이 된다. 여기서 聖人의 血氣之心이 私欲이 淨盡된 義理之心뿐이므로 天人一致하는 것이라면 天地에도 義理만인 天地之心이 있다 하겠다.①

그렇다면 天地之心의 心字와 義理之心의 心字의 含義의 差異는 形質의 有無以外에는 찾아볼 수 없고 따라서 論理的으로는 天人心性은 合一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보니 天에도 理氣心性이요 人에도 理氣心性이니 心性論에 있어서 天人이 亦是 一元的인 立場에 있다 하겠다. 朱子는 太極圖說解에서 性是 太極과 같고 心은 陰陽과 같다②고 하여 心性은 天에 있어서의 理氣問題와 같음을 말했다. 理氣의 本質과 關係는 心性의 本質과 關係이니 性是 理요 心은 氣이며 理氣의 一而二 二而一의 關係는 心性의 關係이다. 退溪도 動靜陰陽은 心이요 天地之太極은 사람의 性이라고 引用하고 있다.③ 性を 理라고 하고 心を 氣라고 하는 것은 不相雜의 立場이요 心を 理與氣合이라고 하는 것은 不相離의 立場이다. 心を 理라고 하면 理는 性이니 認性爲性이 되어 心이란 必要없는 存在가 되고 性を 氣라고 하면 氣는 心이니 認性爲心의 結果가 되어 性이란 찾아볼 길이 없게 된다. 性を 理與氣合이라고 하면 理가 作用性으로 되어 不可하고 心を 理與氣合이라고 하면 法則을 갖춘 氣가 된다. 그러므로 性是 理라야만 되고 心은 氣가 아니면 理與氣合이라야 된다. 性を 理라고 하는 것은 不相離속의 不相雜의 理인 것같이 心を 氣라고 할 때에도 不相離속의 不相雜의 氣라고 말하지 못할 바는 아니로되 所以然의 理는 純理가 可能하지만 所然의 氣는 純氣가 不可能하며 純理는 氣의 獨立性을 侵害하지 않지만 氣는 純氣일 수 없는데서 理를 侵奪하고야 만다. 이런 것은 理氣의 本質上 必然인 歸結이다. 그러므로 或者 心之體는 性이라는데서 이에 拘泥되어 對性而言 則心은 氣라고 主張하고④ 있어 條理가 있는 듯하나 이는 性이 아니면 心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서 性이 心의 基礎的 構成要素임을 看過하여 생긴 論理라고 하겠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詳考하여 보건대 心を 偏言할 境遇에 氣라고 할 수 있다하여도 性의 純理性을 前提하는 以上 理라고는 더욱 할 수 없고 極本窮源의 定義는 理與氣合이라고 結論짓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 나. 心統性情

心은 虛靈知覺을 말하니 則事物을 識別하는 感覺作用과 是非善惡을 判斷하는 등 認識의 能力이며 그 作用 그 自體를 意味하는 것으로서 一身의 動靜語默 全體大用을 統括主宰하는 神妙不測한 存在이다. 이와 같이 虛靈不昧한 心은 무엇으로 形成된 것이며 그 正體는 果然 어떠한 것일까? 哲學과 科學은 原則적으로 一致하는 것이므로 生物學 心理學的으로 究明되고 論理學的으로 推理辨證되어야 할 것이다.

心이란 操守하면 存在하고 놓으면 亡失하여 出入하는 時刻이 定해 있지 않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 定處도 없어 宗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⑤ 이는 主敬工夫를 實驗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體知할 수 있으며 따라서 허구 많은 荆棘의 過程에서 經驗한 路程記로 先賢들의 文集은 꼭 차있는 것이다. 心은 理與氣合임으로 虛靈知覺한 것이 되고⑥ 性情을 統括한다⑦ 하고 神妙不測하다⑧ 하고 道에 通하면 無限量하다⑨고

① 復其見天地之心乎(易復卦)

② 性猶太極也心猶陰陽也太極只在陰陽之中非能離陰陽也然至論太極則太極自是太極陰陽自是陰陽唯性與心亦然所謂一而二二而一也(性理大全太極圖解)

③ 動靜陰陽是心天地太極在人便是性(答李剛而別紙 退溪集影上 五三四頁)

④ 按心專言之則合理氣蓋包性在氣中故也若與性對言之則性則理心即氣而不可復以合理氣言心也蓋既以理屬性而又以心爲合理氣則似涉二理故也(韓南塘集拾遺)

⑤ 孔子曰操則存舍則亡出入無時莫知其鄉者唯心之謂與(孟子告子)

⑥ 理與氣合便能知覺(朱子)

⑦ 心統性情(張橫渠)

⑧ 人心妙不測(朱子詩齋居感興詩)

하였다. 心에 虛靈知覺이 있으므로 이것이 身의 主宰가 된다<sup>①</sup> 하였고 그 體用이 人身에 充溢하고 六合에 彌滿한다 하겠다.<sup>②</sup>

이와 같이 定時定處가 없는 心이라고는 하나 그 根據地가 있어야 即體即用의 神妙不測한 作用이 可能하지 않을까? 氣는 理의 掛搭處요<sup>③</sup> 心은 性의 郛廓이라<sup>④</sup> 하였으니 果然 어떤 것일까? 朱子는 黃義剛에 答하는 데서 心이란 一塊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心의 神明이 出入하는 寓舍라고 하였다.<sup>⑤</sup> 이것이 心臟을 指稱하는 것임은 勿論이나 中樞神經인 大腦作用을 兼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心臟이란 血氣를 主宰하는 機關으로서 깊이 생각하면 神明이 머무르며 理與氣습의 虛靈한 主宰者임을 自覺할 수 있으나 그 直接的인 知覺作用은 頭腦神經에서 하고 있음을 알 것이다. 則認識의 主體란 理를 根據者로 한 虛靈한 것이라고 하겠으니 따라서 理를 直接 認識의 主體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情은 性이 動하여 外部에 나타난 것을 말하는데 이는 그 發動하는 刹那를 指摘하고 自他の 知不知는 關係하지 않는다. 또 이는 闕然發生하는 것이오(不自知中の 心의 主宰圈內에 있지만) 어떠한 計較謀度이 없는 것이니 易의 中孚卦의 風感水受를 생각하면 될 것이다. 情은 有正有邪하지만 嚴密한 意味에서는 雷天大壯卦의 動以天의 正한 것만이 情이다.

意는 心의 發한 것이라고 하였다.<sup>⑥</sup> 心이 未發에는 寂然不動하고 外物의 觸感을 받아서 發動하면 外部로 通해 나오는데 그 發을 말하는 것이다. 意도 亦是 情과 같아 發하는데 있어서 纔思하면 已發인 것과 外部에 알 수 있도록 나타남을 要件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情과 意가 따로따로 性發 心發이라 하여 二個의 發을 말하는 것 같으나 情意의 關係는 發의 側面에서 보면 意中에 情이 있고 能所의 側面에서 보면 情中에 意가 行한다고 하겠다. 情은 性의 發이므로 그 自身에 어떠한 計度이 없으니 舟車와 같고 意는 進退可否를 定하는 能力을 所有하고 있으니 사람이 이를 漕運하는 것과 같다.<sup>⑦</sup>

心이 性情을 統攝한다 包括한다 主宰한다는 것은 形而下의 機器的 役割을 하는 意味에 不過한 것이요 決코 命物하는 理를 主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性이 心의 구실을 해서 直接知覺의 能力을 發揮하는 것도 아니다. 性은 所以然의 뜻에서 命物한다면 心은 이 命을 받아서 그 範圍內에서 性情을 統宰하는 것이다. 孟子의 惻隱之心은 仁之端이란 心性情의 關係를 잘 나타 낸 것이니 仁은 性이오 惻隱은 情이오 心은 中에서 統攝하는 것이다. 그러나 心이란 不過是性의 主宰處를 말한 것뿐이니 또한 이것으로 저것을 統攝하고 主宰하는 것도 아니다. 心性의 問題는 이와 같이 말하기 어려우니 이것을 眞知得하는 方法이란 敬以外에는 없는 것이다. 即易有太極이나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靜而生陰이 吾人身上에서 具體的 實地에 있어서 어떻게 一貫體用되는 것인가를 自覺得하지 않고는 아무리 그럴싸한 論理도 그 缺陷의 馬脚을 들어내고야 마는 것이다.

앞서 心의 寓舍로서 心臟이니 大腦神經이니 하였으나 心은 決코 이것들 그 自體는 아니다. 操持存心을 말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操持할 것인지는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무것도 없다.

#### 다. 心性의 動靜問題

已發을 動, 未發을 靜이라고 하며 動을 用, 靜을 體라고 하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이다<sup>⑧</sup> 그러나 이는 理氣

⑨ ...心則性也在天爲命在人爲性所主爲心實一道也通乎道則何限量之有必曰有量是性外有物乎(程子)

① ...有箇虛靈知覺便是身之所以爲主宰處(性理大全陳北溪)

② ...其體其用滿腔子而彌六合(退溪集答金而精影上六八〇頁)

③ 無是氣則是理亦無掛搭處(朱子)

④ 心者性之郛廓(邵康節)

⑤ ...曰此非心也乃心之神明升降之舍(朱子) 非此心無以寓此理氣也故吾人之心虛(理)而且靈(氣)爲理氣之舍(退溪集影下一四三頁)

⑥ 意者心之所發也(大學)

⑦ ...性如舟車意如人去使那舟車一般(朱子)

⑧ 心一也有指體而言者寂然不動是也有指用而言者感而遂通天下之故是也(程子)

心性으로 나누어서 觀察해야 한다. 理의 動靜體用과 氣의 動靜體用은 그 內容이 相異할 수 있기 때문이다. 理의 動靜은 理自體에 어떠한 變化를 가져오지 않는 意味에서의 動靜이오 體用도 이에 따른다.① 그러나 氣의 動靜은 이와는 달리 動陽靜陰과 같이 反對인 變化를 이루거나 또는 一物의 靜體動用의 靜動으로서 體用을 세울 수 있는 變化를 이루기도 한다. 이 境遇 氣의 互藏其宅의 妙를 하고 있다. 理와 氣의 關係에 있어서의 動靜體用問題는 兩者가 相須相待하여 體用을 이룬다②는 不相離의 側面에서 볼 때 恒常 一致하는 것 뿐이요 그 本質的 差異에서 오는 것을 忘却해서는 안 된다. 理氣心性是 發未發을 通貫해서 存在한다. 그러나 不相離를 前提할 수만은 없다. 未發之中은 天命之性이니 이때에 始源의 氣를 云謂할 것은 못된다. 더욱이 上下關係의 始源의 氣는 말할 수 있지만 左右對待의 그것은 있을 수 없다. 明鏡止水니 誠立明通이니 主靜이니 氣不用事니 氣亦本善이니 湛然情虛니 하는 데서 理氣一物說이 나오는 病源이 된다고 하겠으나 또한 本來渾然임도 알아야 한다.

以上으로서 理到說을 理解하는데 必要한 程度의 理氣心性的 部分的인 說明을 加해보았으나 오히려 本題에 對하여 張皇한 感이 있어 未洽한대로 그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 3. 格物致知說(大學章句를 中心으로)

格物致知는 大學八條目中 第一의 關門이 되는 것으로 學問이란 知行을 말하며 이 知行을 닦는 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方法이 講究되어야 할 것은 當然하다 하겠다. 以下 朱子の 解說을 말하고 다음에 退溪의 格物致知說과 理到說의 眞意를 밝히려 한다.

#### 가. 朱子の 格物致知說

大學의 經文에는 知를 格致하는 方法으로서 逆推工夫를 先設하여 “欲…先”二字로 묶었으니 이것은 例컨대 이것을 이와 같이 하려면 먼저 저것을 이리이러하게해야 한다는 式으로 序述하였고③ 다음에 順推功效로서 “而后”二字를 使用하여 例컨대 저렇게 된 뒤에야 이렇게 된다는 式으로 逆推를 倒置하여 記述했다.④

朱子は 注釋에서

格物을 格은 至也오 物은 事와 같으니 事物의 理를 窮至하여 그 極處에 到達하지 않음이 없고자 하는 것이다.⑤

致知는 致는 推極하는 것이요 知는 識과 같으니 나의 知識을 推極하여 그 아는 바가 極盡하지 않음이 없고자 하는 것이다.⑥

物格은 物理의 極處가 到達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⑦

知至는 吾心의 所知가 極盡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⑧

또 格物致知 補亡章에서

致知함이 格物하는데 있다는 것은 吾知를 致하고자 할진댄 事物에 即해서 그 理를 窮究하는데 있다는 말이다. 대개 人心의 靈覺은 知를 所有하지 않음이 없고 天下의 物은 理를 所有치 않음이 없건만 다만 理에 있어서 窮至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知가 不盡함이 있는 것이다. 이리므로 大學의 始敎에서 반드시

① 太極自是涵動靜之理却不可以動靜分體用蓋靜則太極之體動則太極之用也(太極圖解)

② 蓋理之與氣本相須以爲體相待以爲用固未有無理之氣亦未有無氣之理(退溪答奇高峯)

③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先治其國欲治其國者先齊其家欲齊其家者先修其身欲修其身者先正其心欲正其心者先誠其意欲誠其意者先致其知致知在格物(大學)

④ 物格而後知至知至而後意誠意誠而後心正心正後身修身修而後家齊家齊而後國治國治而後天下平(大學)

⑤ 格至也物猶事也窮至事物之理欲其極處無不到也(大學)

⑥ 致推極也知猶識也推極吾之知識欲其所知無不盡也(大學)

⑦ 物理之極處無不到也(大學)

⑧ 吾心之所知無不盡也(大學)

學者로 하여금 모든 天下之物에 即해서 已知의 理를 因하여 더욱 窮究하여 그 極盡한데 至함을 求하여 오랫동안 努力하여 一朝에 豁然貫通하는데 이르지 않음이 없게 하면 衆物의 表裏精粗가 到達하지 않는 것이 없고 吾心의 全體大用이 밝지 않음이 없으리니 이것을 物格知至라 한다.①

以上 列擧된 글을 根據로 그 本義를 살펴보면 대 첫째 語勢文法으로 보아서 格物致知의 工夫를 말할 때는 格致는 動詞가 되고 物知는 目的語가 되며 物格知至의 功效로 말할 때는 物知는 主語가 되고 格至는 述語가 되니 物을 格하는 것과 格이 이루어진 物이 格하는 語句의 倒置(格物↔物格)로 보아 그 語意를 容易하게 把握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에 欲其所知와 物理之極處는 知는 心之知며 處는 物理의 精微處이므로 主賓에 分이 있으니 則知는 推極한다 窮盡한다는 致知라고 할 때에 勿論 目的語가 되지만 그것은 決코 다른 어떤 知가 이 知를 推致한다는 意味는 아니고 格物의 分數에 따라서 이 知가 推極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所知가 欲無不盡한다는 말이 되지만 精微處란 物理를 修飾하여 一定한 處所를 指摘한 것이므로 欲字와 處字와 到字를 連結지워 생각할 때 무엇이 무엇에 到達하고자 하는 뜻이 된다 하겠다.② 果然 이와 같다고 한다면 所知가 無不盡하고자 한다. 極處에 無不到하고자 한다라고 懸吐할 수 있을까 한다.

工夫가 이러하면 成功된 때의 意味도 이에 따라 變換한 것이다. 物格은 格物 때의 내가 物理의 極處에 到達하고자 用力해서 이제 到達한 것을 뜻함은 勿論이다. 그러면 物理의 極處에 無不到라고 解釋해서 좋을까? 그러나 이것은 나를 주로 한 意味가 됨으로 物이 主語가 되는 物格에서는 내가 到達했다는 뜻을 包含하고는 있지만 반듯한 解釋은 못된다. 則 物理의 極處가 到達하지 않음이 없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到達되지 않음이 없다고 하여도 안 된다. 그러면 物理가 無不到라고 할 때에 그 意味하는 바는 果然 어떨까? 하는 것이 問題이다. 物理의 極處가 無不到라는 것은 나의 窮格에 따라서 物理가 그 全貌를 드러냈다는 뜻이 된다. 則 내가 到達한다는 것은 極處에 當到는 하지만 極處 自體를 드러내는 것은 物理自體에 있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③ 이와 같이 認識의 主體인 心을 爲主로 해서 말하면 心이 客體인 物에 到達하고 所得하는 것이 되고 客體인 物을 爲主로 해서 말하면 物理의 極處가 드러나고 到達하고 應答한 것이 된다. 動靜이나 陰陽의 消長으로 보아도 陽氣가 長進하는 것은 陰氣의 消退를 뜻하므로 陽을 我로 보아 내가 到達하는 것이 되지만 陰氣는 消退와 同時에 다시 陽氣로 變化하여 長進하니 則一面消退 一面長進인 것이므로 陰을 物로 보아 物이 또 對答해온다고 하겠다. 더욱이 이는 形質物로 말한 것이거니와 形而上의 理는 本來부터 形狀方所가 없이 一通一貫되어 內外主客이 없는 것이니 格物을 해서 物理가 밝아지면 그것이 바로 나의 心知가 窮盡되는 것이라 纔明彼則曉此이니 曉此는 物理가 이에 到達하였음을 뜻하는 것임은 疑心의 餘地가 없다 하겠다.

補亡章에서 前段은 格物致知를 말하고 豁然貫通이니 衆物之表裏精粗가 無不到니 吾心之全體大用이 無不明이니 하는 것은 物格知至를 말한 것이다. 앞서 說明한 內容에서 相異한 것은 없고 豁然貫通이라는 語意만 살펴보면 이는 理의 一元萬殊와 心之體用과 物理之體用이 一以貫通되므로 따라서 萬物의 理를 統會管攝하고 있는 心의 體用은 그것이 바로 物理의 體用이라는 意味와 物은 理與氣습인 즉 認識의 主客體를 말하는데 있어서 理氣不相離의 意味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된다.④ 朱子の 說은 이것으로 대강 마치고 退溪의 說을 말하는 中에서 自然히 더욱 밝아질 것이며 比較될 것이다. 그런데 格物致知說에 있어서는 退溪가 朱子說을 어떻게 보아왔는가 하는 것뿐이며 理到說亦是朱子說을 引用하여 自身의 錯看을 翻悟한 것이고 보면 이상에서 그 輪廓은 大體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① ...曰所謂致知在格物者言欲致吾之知在即物而窮其理也蓋人心之靈莫不有知而天下之物莫不有理惟於理有未窮故其知有不盡也是以大學始教必使學者即凡天下之物莫不因其已知之理而益窮之求至乎其極至於用力之久而一旦豁然貫通焉則衆物之表裏精粗無不到而吾心全體大用無不明矣此謂物格此謂知之至也(大學)

② 格物之格極至之謂也如格于文祖之格言窮之而至其極也(大學或問)

③ 物格者事物之理各有以詣其極而無餘之謂也(大學或問)

④ ...豁然貫通焉則亦有以知其渾然一致而果無外內精粗之可言矣(或問)...自其一物之中莫不有以見其所當然而不容已與其所以然而不可易者必其表裏精粗無不盡(或問)

## 나. 退溪의 格物致知說

臨死의 문턱 不過 二十日前에 傷寒으로 臥病中에 있으면서 理到說의 眞義를 解悟한 退溪는 從前의 物格說이 朱子의 本義가 아니며 自身의 未達에 依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則 自己의 誤說을 固執한 것은 朱子의 理는 情意와 計度과 造作이 없는 것이라는 말①을 지키기만 한 때문이라고 하고 따라서 理는 自用하지 못하는 것으로 理解하고 있었으므로 物格의 格과 無不到의 到는 모두 理自身은 그 極處에 到達할 수 없는 것이고 自己만이 到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고 하였다. 그러면 從前說을 簡單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格物致知에 대하여 李剛而나 金而精 趙起伯 等에게 答한 것이 있으나 物格을 仔細히 말한 것은 鄭子中에게 答한 格物物格俗說辨疑에서 볼 수 있다.

첫째로 格物은 物을 格함이라 하고 註의 欲其極處는 極處에 라고하며 物格은 物에 格한이라 하고 註의 物理之極處는 極處에(에)로 懸吐하여 읽는다고 하고 一說로는 極處가로 읽어도 또한 通한다고 하였으며, 둘째로 補亡章의 衆物之表裏精粗는 精粗가로 懸吐한다고 하였다.

物格의 註에서 極處에는 己到極處의 뜻이 있고 一說에 極處가라고 하는 것도 亦是 己到極處의 뜻에서 通한다고 한 것이니 어쨌든 내가 物理極處에 到達하는 것이지 極處가 나에게 自至한다는 뜻은 아니다. 또 物格은 功效인데 物理之極處에 無不到라고 하면 工夫하는 뜻이 됨으로 極處가로 읽어야한다는 反論이 있는데 對하여 비록 極處에라고 해도 功效를 나타내는 뜻에 해로울 것이 없다고 하며 그 例로 사람이 郡邑을 經由하여 서울에 갈 때 到着할 때까지를 工夫하는 것이라고 하여 極處에로 한다면 서울에 當到한 後라고 해서 어찌 極處에라고 못하겠는가? 功效라고 해서 極處가로 한다면 郡邑이(가) 이미 지나서 서울이(가) 이미 이르러라는 말이 될 것이니 이렇게 되면 經歷한 것은 人이 아니라 郡邑이며 到着한 것은 人이 아니고 서울일 것이니 말이나 意味를 이루지 못한다 하여 至者는 主가 되고 極處는 賓이 되어 主賓關係가 分明한 則 極處가 自到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萬物의 理는 本來 吾心에 具備하고 있어 彼此가 없는 것인데 極處(에)라고 하면 理와 我가 二로 되어 彼此를 分別하는 것이 되니 안 된다고 하는데 對하여 理는 本來 物我의 間隔이나 內外精粗의 分別이 없는 것이나 事物을 主로 해서 보면 天下事物은 事實로 나의 外界에 存在하고 있으니 어떻게 理一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모두 吾心에 있다고 하겠는가? 理와 我가 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事物에 있는 理는 바로 吾心에 具有한 理로서 彼此內外가 없다는 말이오 나를 버린 即事即物이나 心이 몸을 떠나 極處에 到達한다는 것이 아닌 則에라고 한대도 理와 我가 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음은 退溪가 그 當時와 從前의 學者 사이에서 行해진 物格說에 對한 批判을 살펴 그 意中을 더욱 알아 보기로 하겠다. 則成均館大司成 尹倬先生은 物理之極處가로 懸吐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極處가 吾心에 自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大司成金老泉은 欲其極處와 物理之極處를 모두 (가)토로 달아야한다고 하였는데 朴瓢道人 光佑가 이 說을 主張하였고 이에 反하여 李晦齋 復古는 兩處모두 (에)로 해야 한다고 하여 爭辨이 大端하였다. 그러나 위의三公의 學說은 直接 들을 수 없다고 하였다. 五十三歲時節에 大司成으로 在任中 知館事인 駱峯申先生은 이 구절을 論하는데 있어 (에)토로 다는 것이 尙當하다고 하고 이 (에)吐로 달아야하는 意味를 잘 理解한다면 物理之極處(가)로 읽어도 無妨하다고 하면서 實例를 들어 말하기를 “가령 한 冊을 읽는데 있어 卷初로부터 여기까지(가) 窮盡하지 않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같이②어찌不可하겠는가?” 하였다. 또 그때 世上에 傳해지고 있는 釋義에 格物은 “吾知를 推極하여 彼物에 至하는 것이오 物格은 物의 法度가 스스로 法度에 至하는것”③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누구의 말인지 確實히 알 수는 없으나 元太初의 말로는 金老泉의 說이 이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申公은 또 말하기를 李復古가 말하기를 “心到極處(마음이 極處에 到達

① 只知守朱子理無情意無計度無造作之說(退溪集答奇明彥)

② 假如言讀此書自卷初至此處是無不盡也豈不可也(退溪答鄭子中書)

③ 格物推吾之知至於彼物也物格物之法度自至於法度(退溪答鄭子中)

한 다”라고 하나 이말은 그르니 만약 心到라고 하면 바로 이는 이미 知至를 말하는데 빠지는 것이 되고 物格은 아니다 하였으며 元公도 또한 말하기를 “李公이 말하기를 ‘我到極處(내가 極處에 到達한다)’라는 것도 그르다.”고 하였다.

以上 諸說에 對한 退溪의 論評을 보면 ①申駱峯의 (예)吐와 物理之極處가 自到하지 않는 것을 本意로 하는 (가)吐는 無妨하다는 말을 옳게 보아 이말은 實로 그 뜻을 얻은 것이니 極處(가)라고 한대도 到는 依舊히 그 根處에 窮至한다는 意味요 極處가 我에게 自至함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②金老泉의 말이라고 하는 推吾之知는 이는 바로 致知의 일인 것을 지금 格物에다 말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옳지 않고 또 理를 法度라고 하는 것도 理解가 안가는 말인데 거기다 法度에 自至한다고 하는 말은 即極處가 스스로 到達하지 않음이 없다는 뜻이 되니 誤謬가 더욱 심하다고 말하고 金公은 學問이 精密하기로 이름이 있는데 이와 같은 잘못이 있을 수 없을 것이지만 만약 金의 說이 果然 이와 같은 데도 朴이 이 말을 主張하였다면 李復古의 이를 옳지 않다고 한말은 當然하다고 하였으며 ③物理之極處 無不到의 到는 心到니 我到니 하는 것은 病痛이 있으니 다만 窮到極處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위의 ①②③에서 退溪의 本意가 더욱 極處가 自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窮到하는 것이라는 見解임이 明白해졌다고 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主張인 從前說의 잘못을 깨닫고 奇明彥說에 同意한 理到說이란 果然 어떠한 것일까? 便宜上 「答奇明彥 別紙」를 說明해 가면서 알아보기로 한다.

物格의 格과 無不到의 到를 내가 物理의 極處에 到達하는 것이지 物理가 어찌 極處에 自至하겠는가 하는 主張을 固執해 온 것은 朱子の 理는 無情意 無計度 無造作이라고 한 말만을 偏守한 때문이었다고 하였고 理到說을 是認하는 根據로서

1. “사람의 學問하는 것은 心과 理일 뿐이니 心이란 비록 一身을 主張하는데 不過하지만 그 體의 虛靈함은 充分히 天下의 理를 管攝할 수 있고 理는 비록 萬物에 散在되어 있지만 그 用의 微妙함은 實로 一人의 心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니 처음부터 內外精粗를 가지고 말할 것은 못된다.”①

이에 對하여그 小註或問에

2. “用의 微妙는 이것이 心의 用입니까?”②

朱子는 이에 對하여 말하기를

“理도 반드시 用이 있는데 어찌 반드시 心의 用이라고 말하겠는가? 心의 體는 이 理를 具備하였고 理는 갖추지 않은 것이 없어 一物도 있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用은 實로 人心에 不外하니 대개 理는 비록 物에 있어도 用은 實로 心에 있다.”③

고 하였다.

退溪는 이 말을 土臺로 하여 이렇게 推理하였다. “理는 萬物에 있지만 그 用은 實로 一人之心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이는 理는 自用할 能力을 갖지 못하고 반드시 人心의 힘에 須待해야만 用을 한다는 뜻이니 그렇다면 理가 自到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理도 틀림없이 用이 있는데 왜 또 굳이 心의 用을 말하겠는가?” 하였으니 上下語를 綜合하여 보면 則 그 用은 비록 人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 用의 妙가 되는 所以는 實로 이 理의 發見한 것이 人心의 至하는 바에 따라서 到達하지 않는 것이 없고 다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니 그렇고 보면 다만 나의 格物이 不足하여 이르지 못함이 있을까 두려울 뿐이지 理가 能히 自到하지 못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겠다. 理의 用이 이와 같이 自到하는 것이라면 格物을 말하는데 있어서는 當然히 “내가 物理의 極處에 窮至한다.”고 말할 것이지만 物格을 말하는데 미쳐서는 “物理의 極處가 나의 窮至하는 바를 따라서 到達하지 않음이 없다고 왜 말하

① 人之所以爲學心與理而已心雖主乎一身而其體之虛靈足以管乎天下之理理雖散在萬物而其用之微妙實不外一人之心初不可以內外精粗而論也(大學或問)

② 用之微妙是心之用否(大學或問)

③ 朱子曰理必有用何必又說是心之用乎心之體具乎是理理則無所不該而無一物之不在然其用實不外乎人心蓋理雖在物而用實在心也(大學或問)

지 못하겠는가?” 이에 이르러 情意의 造作이 없는 것은 理의 本然의 體요 그 器寓하는데 따라 發見하여 到達하지 않음이 없는 것은 이 理의 至神한 用임을 알았다고 하고 더 나아가 앞서는 但只 本體의 無爲한 것만을 보고 妙用의 能히 顯行함은 알지 못한 때문이라 거의 理를 認識하기를 死物인 것 같이 하였으니 너무나도 道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以上으로써 格物致知說의 內容이 밝아졌다고 보면 朱子說과 退溪說은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다. 退溪가 朱子の 理의 自用性을 充分히 理解하지 못한 데서 相異하였으나 그 妙用을 了解하므로써 完全히 一致된 感이 있다 하겠다.

다만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退溪의 理觀이 어찌하여 그렇게도 理의 自用에 대하여 理解가 적었으며 따라서 物格說을 誤解하고 있었던 말인가? 하는 아쉬움과 어떻게 된 것일까 하는 疑訝心을 일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疎忽히 해서 안 될 것이 있으니 그 것은 四端七情說이 비록 朱子說을 根幹으로 한 것이지만 朱子以外的 어떤 學者도 말한 일이 없는 것을 내세워 朱子の 眞意를 精密하게 剖析하고 心性理氣의 奧妙함을 整理深化한 것처럼 비록 理에 對해서 朱子の 眞意를 미처 몰랐다는 事實은 있다 하지만 外在事物의 理가 나의 物格分數에 따라서 到達하지 않음이 없다고 한 것은 또한 他에 明言한 學者가 없는 것으로 보아 高峯과 아울러 높이 評價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긴다.

理到說의 誤解原因이 理의 自到를 否定한 것이며 이것이 理를 死物로 誤認하는 것이 된다면 理到說以前에 있었던 理發說의 眞義는 어떠한 것인가? 살펴볼까 한다.

#### 다. 四七論과 理到說

理發의 理나 理到의 理나 理則一也니 그 本質과 動靜과 體用과 理氣의 關係에 있어서 相異할 수 없는 것이 原則이다. 그렇다면 理到說을 確定짓기까지는 理를 死物로 알았으니 理發의 理는 死理일까? 그러나 理發의 理도 動靜을 뜻하는 것임은 그의 四七論辨中에도 나타나 있고<sup>①</sup> 또 朱子說을 援引하여 理의 動靜을 論한 것도 있으니<sup>②</sup> 死理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理의 動靜에 있어 氣와의 關係를 말한 것도 있으니<sup>③</sup> 어찌면 理到說의 理의 動靜과 같은 뜻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와 같은 몇 가지 設問으로 推理해 보면 그 眞意를 論定할 수 있을 듯하니 則 理發의 理나 理到의 理는 모두 動靜을 말한 理요 決코 死理는 아니다. 理의 自到를 否認하는 理由가 理之體의 無造作임에 있고 理到를 肯定하게 된 것이 理自身에 用이 있음을 깨달은데 있다고 하니 이는 理到說에 限해서만 한 것임을 알겠으니 왜냐하면 退溪는 道理의 體用을 보다 앞서 充分히 認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④</sup> 四七說에서도 理의 體用을 말하였으니<sup>⑤</sup> 理發說의 本意가 어떻게 되었든 關係없이 그 當時에 이미 理의 動靜과 體用을 解得하고 있었으니 理를 死物로 誤認할뻔 했다는 말은 理發說에는 適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理의 體用 動靜을 진즉부터 了解하고 있는 退溪가 理到說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은 무슨 理由에서일까? 그것은 아마도 理發說은 四端七情이 感發되는 側面에서 말한 것이고 理到物格說은 外物의 理를 窮究하여 致知하는 工夫인 데서 생긴 問題인가 한다. 則前者는 自內發外의 一邊뿐이고 後者는 認識의 主體와 客體사이에서 展開되는 것으로서 外在事物의 理가 自主적으로 心의 認識에 따라 自外入內하며 豁然貫通의 內外一貫의 妙한 點이 相異하여서가 아닐까? 退溪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理의 體用論은 그대로 그 範圍內的 것이었고 物理之 極處가 自到하는 神妙한 側面은 비로소 翻然悟覺된 것이나 아닐는지? 萬若에 이렇지 않고 理到說에서 비로소 理의 無造作은 體를 말한 것이고 用이 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는 이제까지 理는 無情意 無計度 無造

① 太極之有動靜太極自動靜...(四七論)

② 按朱子嘗曰理有動靜故氣有動靜若理無動靜氣何自而有動靜乎蓋理動則氣隨而生氣動則理隨而顯(退溪答鄭子中書)

③ ...蓋理不能獨行故將說理處先說氣其意非以氣爲理而妄作一片說也...(退溪答禹景善)

④ 混謂道理有動有靜故指其靜者爲體動者爲用然則道理動靜之實即道理體用之實.....(心無體用辨)

⑤ 蓋理之與氣本相須以爲體相待以爲用(答奇明彥)

作하기만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따라서 理의 體用이니 動靜이니 한 前日의 말은 眞實한 것이 아닌 것으로 致疑될 것이며 退溪學 全般에 걸쳐 一大混亂을 免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理到說에서 말한 退溪의 理를 死物로 誤認할 變했다는 것은 理到說만을 두고 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고 理의 體用에 對한 말은 그 本意를 深察하여 活看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안다.

理發과 理到의 相異한 側面이 事實이라면 理到說을 認證하는 與否에 따라서 四七說의 正當性を 論評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理到說을 承認함으로써 四七論과의 一貫性を 維持할 수 있었다는 意味로 論評하는 說이 있는 데 이것이 반듯한 見解일는지?

以上에서 말한데 의한다면 理發과 理到가 다같이 理의 動靜體用을 理解한 위에서의 말이라는 데서 一貫性을 말하는 것은 그런대로 諒解할 點이 있다고 하겠지만 理發에서 理의 用을 말했는데 理到에서 用을 否定함으로써 一貫性を 잃고 肯定함으로써 四七論을 正當化한 듯한 意味의 一貫性を 維持할 수 있었다는 말은<sup>①</sup> 앞서 밝힌 物格知至에 있어서의 理自到라는 自外入內의 側面이 理發의 그것과 다르다는 點을 充分히 觀察하고 나서의 일일 터인데 어찌하여 그렇다는 것인지? 자세히 알지 못할 일이다. 그것이 설혹 理性的 理와 物理的 理의 一貫性を 말한 것이라 하여도 理는 本來 一物로서 一物兩義인데서 말할 뿐 理와 氣의 關係처럼 二者를 前提로 한 兩者의 一貫性云云은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理性이란 理가 氣를 意味하지 않는 以上 物理的 理와는 一致될 수 없으니 即 物理的인 理는 氣와 一對一이지만 價值的인 意味에서는 理一氣二이니 亦是 一貫性を 찾기 힘들 것이다. 더욱이 理到의 理를 物理的인 理라고 偏稱한다 해도 理發의 理는 반드시 價値上의 理라고만 볼 수는 없는데 있어서이겠는가? 그러나 西洋哲學에서 말하는 理性的 理가 우리 理氣說의 理와 다르다는데 立脚해서 一貫性を 말한 것이라면 本欄에서 問題삼을 것은 아니고 그리고 더욱이 理氣說에서 單純히 理라고만 指言할 때는 理의 物理와 理性的 兩面을 一貫해서 말하고 二本의 理를 말하지 않으니 則 本來 一貫인 것이다. 이것을 理氣 모두 物理的인 面과 價值的인 面으로 分看할 때의 一致一貫性を 말하는 別個의 高次的인 境地의 그것이라면 또한 本欄의 理發理到의 一貫與否에 適應시켜 말할 性質의 것도 아닐 것이다.

하물며 理到說에 있어서의 理之體用云云은 理到說에 限해서만 말한 것이 確實視된다면 어떠한 意味에서이건 一貫性云謂는 納得될 수 없다고 하겠으니 이는 또한 萬의 一이라도 四七論과 理到說의 前後에 連繫되는 一貫性與否가 介在되어 있다면 亦是 退溪의 學的良心으로 보아 반드시 言及되었으리라는 것은 容易히 推測될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한편 退溪가 臨死直前 臥病中에 理之體用에 關하여 비로소 大悟齟齬한 듯한 印象을 풍기는 이 答奇高峯書는 老病衰弱으로 因한 錯簡이 아닌가도 생각되나 그러나 答金而精書 物格之釋이나 答李公浩書에서 밝힌 太極本然의 體用에 關한 글만을 보아도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點을 꼭 두고서 말한 것인지는 確認하지 못할 일로되 “外界의 萬理와 內界의 心理는 하나의 理로 通透되어 退溪의 理觀을 形成하였다.”<sup>②</sup>는 말은 비록 直接 理의 動靜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理到說의 特殊性을 말하여 理自到의 了解로서 不足했던 一面을 補充해서 훌륭한 理觀을 形成하였다는 것이라고 내 나름대로 解釋하여 無理는 아닐는지?

이로써 보면 理到說의 肯否에 關係없이 四七論은 그대로 確固한 것인가 하며 마찬가지로 理到說 亦是 四七論과 旣 側面인 點에서 別個의 一部分이요 決코 一體的인 運命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그러나 四七論에서의 理觀이 基本이라면 理到說의 그것은 이 위에서의 한 側面이라고는 할 수 있을 듯하다.

① 物格說의 解釋에 있어서 物理가 被動的인 것으로 다루어졌던바 오히려 理의 能動性を 主張하는 門人들의 反對에 부딪혀 最後로 自說의 잘못을 告白함으로써 四端七情에서 그가 主張한 理의 能動性を 여기서도 살려 理論의 一貫性を 유지할 수 있었다.(一九七二. 八. 二五. 儒林月報 揭載 朴鍾鴻 「韓國儒學의 特徵」)

② 退溪의 生涯와 思想(柳正東著 九八頁)

四七論의 眞意가那邊에 있는 것인가? 이 問題를 究明하는 것은 다음 機會로 미루고 次項으로 넘어가겠다.

### 三. 結語

格物致知說이 그 範圍에 있어서 一身之中으로부터① 一草一木에 이르기까지 格致의 對象 아닌 것이 없으니② 心性道德의인 人事의 面과 宇宙自然界의 科學의 面을 갖추었다고 하겠다. 그런데도 그 學問方法이 人格形成方面으로 偏傾하였기 때문에 自然科學方面과 西歐式知識論에서 뒤떨어졌음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格物致知를 狹義와 廣義로 나누어 생각해야 할 것으로 여기니 則 人格形成面은 狹義의 格致요 自然科學方面을 兼한 것을 廣義라고 보는 것이다. 儒敎哲學은 修己治人이 그 大綱이나 窮極적으로 要約하면 修己이다. 格致誠正修는 修己之事요 齊治平은 治人之事이니 八條目的 中樞要機는 正心에 있고 正心은 格物致知에 依해서만이 可能하다. 朱子の 知行은 先知後行이나 이 知는 經驗知와 先驗知의 會統인 眞知이요 單純한 聞見之知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기에 知하면 그대로 行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이니 換言하면 知가 아니면 行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知와 行은 居敬과 窮理와 같은 互資인 것으로 一而二 二而一인 則 이런 속에서의 先知인 것이다. 論語에 知者は 樂水하고 仁者は 樂山이라는 말은 知는 輕淸한 陽을 말하고 行은 重濁한 陰을 뜻하니 이는 또한 易의 知崇禮卑라는 것인즉 知行的 關係를 亦是 짐작할 수 있다. 格物致知란 이런 涵養致知③를 뜻하는 것으로 意誠을 行으로 볼 때의 知에 屬하는 일이다. 齊治平의 治人之事가 아무리 어렵고 많다 하여도 그 根本은 亦是 修己一事에 있다 하겠으며 修己는 正心이 樞要이니 格致의 範圍가 人格完成方面으로 좁혀진 것은 儒學이 아무리 治世之務를 擔當包括하고 있다고 한대도 哲學인 만큼 治者의 正心을 爲主로 한 것은 古今을 通해서 본대도 매우 自然스러운 歸趨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만 格物致知의 方法에서 좀더 科學化하지 못한데 對하여서 한스러우며 그것이 廣義의 格致學의 不進과 廣狹의 隔離를 釀成한 原因이 된다면 朱子나 退溪를 말하기 보다는 오히려 儒學的인 한 所産이라고 볼 때 앞으로의 儒學振興을 爲해서 考慮되어야 할 성싶다.

理到說과 四七說은 理到說이 비록 理自到를 말한 것이지만 理는 無形跡 淨潔空濶한 것이며 在物爲理 在心爲知인즉 亦是 理知는 非二物인데서 納得되어야 하고 四七論의 理發은 또 氣와의 對舉互發로서 認理爲氣의 誤解가 없어야 하며 互發이란 意味自體가 橫的對待에서 二根苗脈을 形成하는 것으로 誤認되어도 안되고 一而二의 妙理를 洞察해야 하며 이것이 就心上說인가 就性上說인가 能所上의 意味는 어떠한가를 넓고 깊게 다루어야 하겠고 더욱이 理到說을 認定치 않았어도 理發說에 아무런 不合理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分明히 體察하는 데서 四七論의 正解를 얻을 수 있는 契機라도 있거나 않을까? 그리하여 兩說이 相互分明해 지지 않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 理氣共發說이나 理乘氣發說도 相對的으로 糾明되었으면 하는 所望이다.

① 又曰自一身之中以至萬物之理理會得多自當豁然有箇覺處(大學或問)

② 求之情性固切於身然一草一木亦皆有理不可不察(大學或問)

③ 涵養須用敬進學則在致知(語類伊川語)